

공화국은 위대한 전통과 계승으로 강하다

이 행성에는 200여개의 나라가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 걸음걸음 최대의 시련과 역경을 헤쳐가는 나라는 공화국뿐이다. 남들같은 번세 열백번은 더 무너졌을 최악의 난관도 불사조처럼 이겨내며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역세게 나아가는 조선이다. 과연 조선은 무엇으로 그리고도 흔들리지 않으며 강대한 것인가. 그 무엇으로 공화국은 단 한순간의 추종도 모르고 끝없이 융하는 힘과 열정으로 불의가 판을 치는 이 행성에서 가장 떳떳하게, 가장 용감하게 자기의 꿈

과 리상을 향해 그리도 도도히 전진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장립 75돐 기념행사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이 성대한 기념행사에 몸소 참석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뜻깊은 기념연설로 장내를 격정으로 끓게 하시고 그로부터 며칠후 또다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아 시어 따뜻한 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누구나의 가슴을 한없는 격정으로 높취게 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영상, 자애로운 그 음성, 위대한 어버이의 따뜻한 사랑과 축복을 받은 무한한 행복으로 온 세상이 부러움에 밝은 웃음을 지으며 자기들의 씩씩한 모습을 뽐내는 혁명학원 원아들과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가겠다고 힘찬 결의를 다지는 졸업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겨안게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공화국특유의 강대함, 그 근원과 밝은 앞날에 대한 확신이다.

1

뿌리가 튼튼해야 거목이 자란다.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근원을 가지고있지만 공화국처럼 그렇게 역세고, 그렇게 굳건하며, 그렇게 위대한 뿌리를 가지고있는 나라는 없다. 그 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백두의 혁명전통이다. 카툰의 진명학교 교실을 밝히던 남포동의 불빛이 눈앞에 어려온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었다.

「나는 조선의 산 현실에 부합되는 옳은 지도리론을 내놓자면 고전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절대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지도리론을 마련한다고 하여 10월혁명의 경험같은것을 통채로 받아들여도 안되었고 국제당이 그 어떤 만병통치의 처방을 가져다줄것같이 기대하면서 팔짱을 끼고있어야 안되었었다. <우리가 믿을것은 인민대중의 힘밖에 없다. 2천만의 힘을 믿고 그 힘을 하나로 묶어서 일본제국주의자들과의 혈전을 벌리자.> 나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위침이 자주 울리었다. 나는 이런 충동을 안고 오늘 우리가 주체라는 이름을 달아서 부르 고있는 사상을 보고의 구절구절에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 혁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오한 사색과 탐구속에 찾으신

은 궁지스러운 력사이다.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힘에 대해 생각할 때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는 시의 한구절이 있다.

가마축의 물은 끓다가도 없 어진다— 원천이 없거니— 허나 내물은 대하를 이룬다 동무들! 우리는 대하가 되련다 바다가 되련다 우리의 근간도 민중속에 우리의 힘도 민중속에 있다! 민중과 혈연을 한가지한 빨치산임을 우리 잊었는가? 우리 이것을 잊고 어찌 대사를 이루랴! 민중과의 분리— 이것은 우리의 멸망 이것을 왜놈들이 꾀한다 우리 이것을 모르고 어찌 대사를 이루랴! ...

공화국의 유명한 시인 조기천이 쓴 장편서사시 《백두산》 제4장에서 여러날째 굶은 부대의 전우들을 위해 소를 끌어온 최석준을 비판하는 대목이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의 전 과정에 철저히 견지하여오신 원칙이었다.

항일대전의 나날에 창조된 군민대단결의 이 위대한 힘이 오늘에도 공화국의 거대한 힘이 되어 창조와 전변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오늘날 공화국은 군민대단결의 힘으로 부닥치는 예외와 난관들을 강행돌파해나가고있다. 악성비루스의 류입이라는 건국 이래 대동란도 군민대단결의 힘으로 최단기간에 평정했고 부흥강국으로 향한 돌격로도 군민대단결의 힘으로 열어나가고있다. 참으로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백두의 혁명전통을 억년 드느니 않는 깊고 역세 뿌리로 하

2

는 그를 덤석 그러안고 내가 정말 량세봉의 아들이 틀림없다고 격정을 터뜨렸다. 그날 김구는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내 늦게나마 장군님의 령도 따라 미군들한테 반대하여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내가 잘 싸우면 우리 후대들도 이런 좋은 학원에서 공부할수 있겠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김구 한사람의 심정만이 아니었다. 학원을 돌아본 모든 사람들이 이해들이아말로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는 나라의 기둥이라고 찬탄해마지 않았다. 정말 그랬다. 혁명학원 원아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부모들의 넋을 꿋꿋이 이어가는 기둥같은 씩씩하게 자라났다.

주체37(1948)년 9월 어느날 만경대에 나오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제복을 입은 혁명학원 원아들이 보고싶으시여 몸소 차까지 보내어 그들을 데려오도록 하시었다. 만경대 학교실 사립문을 열고 들어서며 씩씩하게 인사를 올리는 원아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원아들에게 방후 건국에 앞서, 건국에 앞서 유자녀들을 위한 혁명학원부터 세워주시고 거기서 혁명유자녀들을 혁명을 떠메고나갈 기둥감들로 키우시었다.

주체37(1948)년 4월 남북련석회의에 참석하였던 남조선대표들과 기자회견이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았을 때였다. 일행에는 백범 김구도 있었다. 학원의 여러곳을 돌아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던 김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의 그 복잡한 가운데서도 각지로 사람을 띄워 산지사방에 흩어져있던 유자녀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시여 공부시키고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고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그러다가 뜻밖에도 지난날 중국 남방에서 독립군 사령으로 있었던 량세봉의 아들을 알아보고

뜻이 어려웠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언제나 혁명유자녀들을 훌륭히 교양육성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주체86(1997)년 설날아침, 우리 아이들이 나를 기다린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찾아가봐야 하겠다고, 안가면 아이들이 섭섭해한다고 하시며 하늘을 메우며 간담없이 쏟아져내리는 진눈깨비와 몰아치는 눈보라속을 뚫고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아 떠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뜨겁게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이으시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혁명유자녀들을 민족자주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들로 값높이 내세워주시며 성장의 걸음걸음을 손잡아 이끌어주고 계신다.

언제나 혁명학원 원아들을 잊지 않고시고 나라의 천사만사를 돌보시느라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학원을 여러 차례나 찾고찾으시여 혁명유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정,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얼마전 만경대혁명학원을 또다시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뜻깊은 기념연설을 하시면서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의 75년에 걸친 연혁사는 우리 당이 혁명선열들에 대한 도덕의리에 끝없이 충실하여온 력사, 혁명위업 계승에 명줄을 걸고 혁명가후비육성에 정성을 기울여온 력사라고 하시면서 우리 공화국의 력사, 정규적혁명무력의 력사와 맞먹는 혁명학원들의 성스러운 장로의 빛나는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위대한 어버이의 그 사랑과 믿음속에 혁명의 계승자들로 역세게 자라나고있는 혁명학원 원아들의 씩씩한 그 모습은 절세위인들을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가르치심에는 혁명학원 학생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애국충신들로 키우시려는 숭고한

감들로 키우고있다. 주체105(2016)년 4월 22일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전소현장관련취재위부에서 준비해놓은 글작품집과 소묘작품집, 사진화첩 등을 보여주시다가 일군들에게 《원수님 믿음이면 우리는 지구도 든다!》는 직관사건이 인상적이라고 말씀하시었다.

한 일군이 백두산영웅청년들격대원들은 북방의 강추위속에서도 원수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는 신념과 배짱으로 3호발전소언제를 일떠세웠다고 말씀올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런 청년들이 있으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청년들이 지구를 들면 나는 그 지구를 돌리겠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원수님 믿음이면 우리는 지구도 든다!

청년들이 지구를 들면 나는 그 지구를 돌리겠다! 바로 여기에 공화국이 전대미문의 격난속에서도 끄떡없이 부강번영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비결이 담겨져있다.

* *

역세인 뿌리와 위대한 계승은 공화국의 강대함의 근원이고 튼성번영의 확고한 담보이다. 부흥강국으로 향한 공화국의 앞길에는 넘어야 할 험산준령들이 수없이 많다.

허나 도전과 시련이 겹쌓이고 어떤 국난이 앞을 가로막아나서도 휘황찬란한 매일로 공화국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수 없다.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고 혁명위업계승의 력사를 세세대대 수놓아가기에 공화국은 력사의 모진 광풍에도 조금도 끄떡하지 않으며 그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 기적만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공화국은 강하다. 강하여 영원히 이긴다!

본사기자 손지성

